

빈곤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김규현

2015년 10월 12일 | 1:12 오 후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값비싸게 지불하고 노후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 불안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묻는다. 이 빈곤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오는 17일 세계빈곤퇴치의날을 앞두고 대구·경북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빈곤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요구하는 '빈곤철폐 주간'을 선포했다.

12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19개 대구·경북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대구시청 앞에서 '1017 빈곤철폐 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규정 폐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 철회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상대적 빈곤선 도입 △청년, 장애인, 노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권리 보장 △빈곤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졌고, 어떻게든 먹고는 살았던 사람들도 힘겨워 허덕이고 있다. 예컨대 한국사회에 살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자신의 노후를 걱정한다"며 "이 불안의 원인은 '복지'라 불리는 사회안전망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성실히 세금을 내도 나이가 들었을 때 국가가 나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고 토로했다.

노금호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가족을 등지고 떠나야만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가족과 연을 끊고 한 달 50만 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근근이 살아간다"며 "지난 10년 투쟁으로 만들어진 대구시 장애인 복지 관련 정책이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정부 정책과 유사·중복이라는 이유로 수십억 규모의 장애인 정책 예산을 깎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정부 사회보장위원회는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기준'을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대구시와 대구시 8개 구·군의 정비 대상 사업은 모두 56개 사업, 약 226억 원 규모다.

홍진희 알바노조대구지부 조합원은 "지금 대학생들은 학업에 열중할 시간이 없다. 새학기가 시작되면 이번 학기

등록금은 얼마지, 알바는 얼마나 해야 하는지 계획을 세우느라 바쁘다. 결국 부족한 돈은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청년들은 꿈을 찾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국가와 정부에서 그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는 17일부터 "헬(Hell) 조선, 로우(Low) 빈곤, 쌀 좀 주소! 빈곤없는 세상을 위한 빈민들의 행동"을 시작한다. 17일 대구백화점 앞 야외무대에서 오전 11시부터 청년빈곤, 주거 빈곤, 장애인 빈곤, 노동 빈곤 등을 알리는 빈곤박람회 부스행사가 열리며, 오후 2시부터는 문화제와 퍼레이드가 열린다. 21일 오후 2시 대구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과 부양의무제 폐지 운동에 대한 포럼이 열린다.

1017 빈곤철폐의 날

빈곤한 우리가 스스로 외치고 요구하며 행동하겠습니다!!



■ 1017 빈곤철폐 주간 선포 기자회견

- 일시: 10월 12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대구시청 앞

■ 기초생활보장제도 포럼

- 개별급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부양의무제 폐지운동의 밑그림
- 일시: 10월 21(수) 오후 2시
 - 장소: 대구인권위사무소 인권교육실 (우리들병원 지하1F)

■ 빈곤없는 세상, 문화제 및 퍼레이드

- 일시: 10월 17일(토) 오후 2시
- 장소: 대구백화점 앞 야외무대
- 퍼레이드: 대구백화점 -> 중앙파출소 -> 한일극장 앞
- ※ 부스: 청년빈곤, 장애인빈곤, 주거빈곤, 노동빈곤 등 당사자들의 빈곤의 문제를 알리는 부대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진행

*문화제/퍼레이드 Line Up

오늘도 무사히. 아мага타 트윅스터.

(1017빈곤철폐의 날)은 가난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촉구합니다. (1017빈곤철폐의 날)은 가난한 이들이 쫓겨나는 세상이 아니라 빈곤문제 자체를 우리 사회에서 없애는 행동에 함께 나서고자 하는 사회, 시민, 노동단체 및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1017빈곤철폐의 날)과 함께 해주세요!

1017 빈곤철폐의 날 대구경북 조직위원회

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 노동당대구시당 | 녹색당대구시당 | 대구민중과함께 |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대구주거연합 | 대구쪽방상당소 | 대구장애인연대 | 민주노동대구지역본부 | 민중행동 | 빈곤네트워크 | 알바노조대구지부 | 인권운동연대 | 장애인지역공동체 | 정의당대구시당 | 청년취미대구경북지부